

序文

晉山之姜吾宗也自鼻祖元帥公以後代有冠冕名公鉅卿赫赫繼武爲東國大姓者千有餘祀支分派別兄弟之子爲堂從堂從之子若孫爲再從三從而後屬浸疏終歸於路人然顧其初則一也何忍昧昧不知其今之雲仍爲昔某公之支派而視之若路人哉嗚呼此譜之所以不可不作而其有關於追遠而惇叙者非淺鮮也宗人姜都事碩老甫專精致力考出系次第編成一譜刊錄其子孫而宅相以下不與焉以同宗爲重故也其追遠之誠惇叙之誼實在於斯譜而爲吾宗之一大幸也蘇老泉族譜引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

生矣余亦曰觀斯譜者亦足以感發其善端而無復有路人視之歎也況當衰
替不振之日苟能因斯譜而上念祖先之遺烈而務自奮起焉下勵子孫之
頽習而期以立揚焉芝蘭玉樹之寶滿於謝氏之庭高車駟馬之慶溢於于公
之門使之轉今而回昔則抑可見斯譜之有助而尤不爲幸中之幸歟噫老者
勸之少者勉之則茲亦不難致也明矣諸君以余齒最長強請爲之弁辭不
獲於是乎書

歲丁未清和之閏下浣不肖後孫通政大夫丞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

春秋館修撰官後孫瑜謹序

러운 마음이
절로 날것이라 하였다. 내 또한 말하노니 이
조그마를 보는 이는

착한 마음이 흐느껴서 다시는 길가는 사람처럼 대함이 없어야 하겠거늘 하물며
외되하여가는 오늘날을 당하여 진실로 이 족보로 말미암아 위로 조상님들이 끼치
신 충렬을 사모하여 떨치고 이러날것을 생각하고, 아래로 자손들의 퇴폐한 풍습을
깨우쳐 기어히 이름을 세상에 높이 드내도록 만들어야 할것이다 자손의 착한 보배
는 사씨의 뜰에 가득하였고 부귀의 경사는 우공의 가문에 가득하였으니 우리 또
한 온 종족으로 하여금 오늘날을 전회하여 옛날을 회복한다면 이 족보의 도움을
여기서 볼수 있을 것이니 더욱이 다행한 가운데서 다행이 아나겠는가. 오! 높은
이는 권하고 젊은이는 힘쓴다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 분명하다.
제군이 내가 나이가 장 많다 하여 굳이 서문을 청하기로 사양하다 마지못하여
이에 쓰노라.

세 정미 청화지은 하완 불초 후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유(瑜) 삼가 서함

晉州姜氏重修直系家譜

始祖以式後孫

一世

諱啓庸

文科國子博士
高麗元宗甲戌
以通信使書狀
官赴日本還封
晉山府院君掛
冠不仕見遺事
第渭庸小監

二世

子引文

文科殿中內給
事博士公之入
日本也公隨行
備經艱險忠烈
王辛巳以公會
知道里又舉爲
通信書狀官還
不復仕戒子孫
勿業儒術事載
輿地勝覽

三世

子師瞻

由吏進忠烈
王朝監察御史
墓慶尚道草溪
郡甲山里無表
誌可考後孫設
壇祭之有壇碑
十七世孫應教
世白撰碑文舊
譜云判內議令
參理副使

四世

子昌富 大將軍

子昌貴

由吏進判圖正
郎忠穆王丙戌
以鷄林判官移
任永川贈重
大匡門下侍中
晉原府院君
配永嘉郡夫人權
氏父閣門祿候
允保祖檢校將
軍金紫光祿大
夫尚書左僕射
子興曾祖尚書
左僕射上將軍
守洪墓甲山先
塋壬坐雙墳伯
昌富大將軍有
子孫各譜

五世

子君寶

忠肅王甲子南
宮敏榜登第政
堂文學藝文館
大提學三重
匡門下左侍中
鳳山君謚文敬
公洪武庚申別
世墓星州嘉利
縣代寺前御谷
里丙坐有挽詞
牧隱李穡陽村
權近見遺事
配鷄林郡夫人金
氏父戶部尚書
麗珍祖太子詹
事天錫曾祖殷
公洪武壬申卒
墓京畿臨江縣

六世

子著 見二

晉州姜氏重修直系家譜